

강이야기

2

River & Culture



이학영 | 한국생태환경연구원 원장

우리협회 간설분과 부위원장

(koreafish@hotmail.com)

학명 : *Oryzias latipes*

지역 방언 : 눈챙이, 곡살이, 눈길망태기, 눈타리, 송스리지,
깨파리, 좀마니 등

분류 : 동갈치목 송사리과

자생 수역 : 우리나라의 호수, 수로, 논, 하천, 웅덩이 등

주 서식장소 : 유속이 느린 곳, 수초가 우거진 곳.

번식 기 : 4~10월

크기 : 4 센티 내외

독자들에게 송사리는 우리 물고기를 아느냐고 물으면
하천 관련 일을 하는 나를 무시하느냐고 눈을 부릅뜨고 볼
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고 작은 물고기로 알
려져 있어 '송사리를 모른다는 것은 곧 한국 사람이 아니다'
는 것과 같이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과연 얼
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송사리를 다른 작은 물고기들 사이
에서 구분해 낼 수 있을까? 물고기에 대한 지식으로 어느 정
도 내공이 쌓인 사람들만이 가능하다고 말하면 일반인들이
잘 수긍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실지 연구수족관에 있는
여러 종류의 작은 물고기들 사이에서 송사리만을 구분해 내
라고 하면 땀을 뺨뻑 흘리며 대략 난감해하기 일쑤다. 이놈도
송사리 저 너석도 송사리 아무 물고기나 송사리로 멋대로 종

을 바꾸어 버린다. 하기야 세상에 작은 물고기는 모두 송사리. 아니면 피라미로 알았으니 수십 종의 어린 물고기가 혼영하는 수조에서 일반인이 아이 송사리만을 쭉 집어 낼 수 있으리오. 사리 분별이 안 될 수밖에. 그래서 책상 앞 교과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연에서 직접 채집도 하고 몇 마리는 길러서 번식도 시켜보는 체험학습이 필요한 것이라고 필자는 늘 목청을 높이고 있다.

송사리를 가장 흔한 민물고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우점종은 피라미이고 그 외 붕어, 참붕어, 모래무지, 들고기, 벼들치보다 발견빈도수가 떨어지게 된 물고기가 바로 송사리. 예전에는 집 주위 작은 도량, 논고랑, 웅덩이 등에 바글거리다는 표현으로 발견되었던, 어느 정도 오염에도 강했던 송사리가 지금은 과도한 농약과 폐수로 인해 살아갈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터.

송사리는 국내 어종 중 크기가 가장 작아 성어가 되어도 4cm 남짓이다. 등지느러미가 몸의 뒷부분에 치우쳐 있으며 꼬리지느러미가 갈라지지 않은 것이 다른 소형 어종과 구별 되는 특징이다. 보통 때의 송사리는 수백 마리씩 큰 무리를 지어 살지만 산란기에는 무리에서 벗어나 각자 세력권을 형성한다. 송사리가 그 작은 몸으로 수많은 천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멸종되지 않았던 것은 우수한 번식능력을 가졌기 때

우리 하천 우리 물고기

송사리 : 작다고 모두 송사리가 아니다

문이다. 종종 필자에게 송사리 매운탕을 하겠다며 어디에 가면 많이 납치할 수 있느냐는 매우 시덥잖은 문의를 해오는 ‘벼

룩간불사파’ 인류가 있어 그 서식지를 알려주노니
(물고기道 많았郡 잡으면 송사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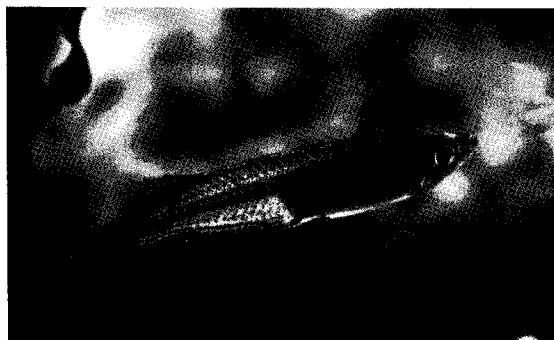
송사리에서 배우라

상감 이학영 / 시인

인간사	내 뜻 옳고 남이 보는 관점 틀렸다하니 온갖 시시비비 송사와 분쟁 속 사리분별 실종되고
-----	--

눈. 귀 따가운 지구촌	입장 반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알 수도 있을텐데 미물이라 무시말라
--------------	---

송 사 리 떼	그 위대하게 내려오는 공존의 지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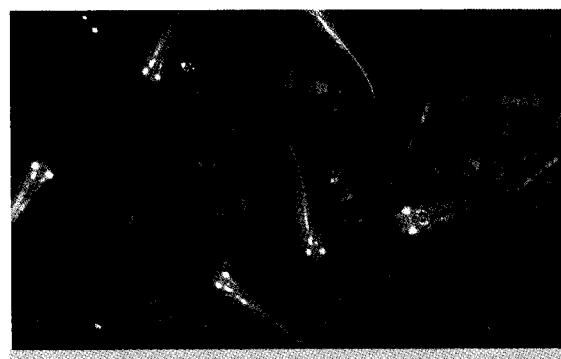
(그림 1) 송사리
수질오염, 환경변화, 염도에 대한 내성이 비교적 강해서 흔히 하던 송사리. 근래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림 2) 송사리 짹짓기
송사리는 수온과 주위 환경이 맞으면 수시로 짹짓기를 한다. 사진 아래 암컷은 알을 배에 달고 열애중이다.



(그림 3) 송사리 알
조그만 당치에 비하면 매우 큰 알을 낳는다. 수초에 붙은 알에서 눈이 생겨 태어날 때를 기다리는 아기 송사리.



(그림 4) 송사리 떼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사이좋게 무리를 이루며 산다. 천적에게서 자신과 동족을 지키기 위한 공존의 본능이다.